



**현대백화점, 서울숲서 '내 정원 가꾸기' 첫 식재**  
현대백화점은 지난 25일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서울숲에서 친환경 기부 프로젝트 '내 정원 가꾸기' 첫 식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내 정원 가꾸기는 현대백화점이 고객과 함께하는 도심 녹화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친환경 기부 프로젝트로, 고객이 8개 정원 중 희망하는 정원을 선택해 기부하면 현대백화점이 절반의 비용을 후원한다. /현대백화점



**SK바사, 2026 IVI 박만훈상 시상식 개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3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2026 IVI-SK바이오사이언스 박만훈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박만훈상은 전 세계 예방접종 확대와 백신 형평성 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선정하는 행사로, 국제백신연구소(IVI)가 주최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후원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



**풀무원푸드엔컬처, 백석대와 산학협력 MOU**  
풀무원의 푸드서비스 전문기업 풀무원푸드엔컬처는 백석대·백석문화대와 미래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 및 산학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충남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진행됐으며, 협약식에는 풀무원푸드엔컬처 이동훈 대표와 백석대학교 송기신 총장, 백석문화대학교 이경직 총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풀무원

**한·베트남 핵심광물 협력 본격화**  
**하노이 기술협력센터 내년 개소**  
KIAT, 하노이서 전략 포럼 개최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한국과 베트남의 기술협력이 본격화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베트남 핵심 광물 협력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KIAT와 베트남 산업무역부를 비롯해 양국 광업 기업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산업통부의 '핵심 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조성 사업' 수행기관들이 모여 사업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공동 선언문을 교환하고, 가공 기술 고도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협력의 기틀을 다졌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담당관 윤병민 △기능정보기획팀장 김동현 △노동시장조사과장 정향숙 △감사담당관 이경근

**부음**

▲유형열씨 별세, 현철민(프로야구 SSG 랜더스 스카우트팀 파트장)씨 장인상 = 26일, 보은농협장례식장 제2분향소, 발인 28일 오전 7시30분. 043-543-3360

# 삼성전자 '코랄 인 포커스', 국제 어워드 잇단 수상

갤럭시 오션 모드 산호초 복원 지원 UCSD·시트리와 해양보호 프로젝트 헤일로 어워드 지속가능성 부문 금상 국제 해양영화제 다큐멘터리 수상

삼성전자가 갤럭시 카메라 기술인 '오션 모드'를 활용한 산호초 보호 프로젝트 '코랄 인 포커스'로 주요 국제 어워드에서 잇따라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어워드 수상은 삼성전자의 환경 비전 '지구를 위한 갤럭시'의 일환으로 추진된 지속가능성 활동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코랄 인 포커스'로 모바일 기술이 해양 생태계 보호와 기후 행동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UCSD)의 해양학 연구소 스크립스와 미국 비영리단체 시트리와 함께 갤럭시 카메라 기술을 활용한 산호초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카메라 기술인 '오션 모드'를 활용한 산호초 보호 프로젝트 '코랄 인 포커스'로 주요 국제 어워드에서 잇따라 수상했다. /삼성전자

갤럭시 AI폰을 통해 수집된 다수의 산호초 사진은 스크립스 연구소로 전달돼 3D 산호초 복원도를 제작하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는 데 사용된다. 그리고 지역 활동 단체들은 다시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산호초 복원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코랄 인 포커스' 프로젝트는 글로벌 사회공헌 시상 '2026 헤일로 어워드'의 지속가능성·환경보전 부문에

서 금상을 수상하며 산호초 생태계 보호를 위한 기술 혁신과 글로벌 협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올해 24회째를 맞은 '헤일로 어워드'는 글로벌 사회공헌 전문 단체 '인게이지 포 굿'이 주관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환경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우수 사례를 선정해 상을 수여한다.

또 삼성전자가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각계의 협력과 프로젝트 여정을 담아 제작한 '코랄 인 포커스' 다큐멘터리도 인정받았다.

'코랄 인 포커스' 다큐멘터리는 지난 10일 북미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규모를 갖춘 해양 전문 영화제인 '제23회 국제 해양 영화제'의 '해안 및 도서 문화상' 부문에서도 수상했다.

삼성전자는 2024년에 바닷속 산호초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수중 사진 촬영에 최적화된 모드인 '오션 모드'를 이 프로젝트를 위해 개발했다.

현시 활동가들은 삼성전자가 개발한 오션 모드를 통해 ▲수중 촬영 시 발생하는 과도한 파란색 톤을 줄이고 산호초 본연의 색상을 촬영할 수 있고 ▲셔터스피드 최적화 및 멀티 프레임 영상 처리 기술 기반으로 사진 결과물 내 모션블러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인터벌 기능을 활용해서 한번에 수천장의 고화질 산호초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 공영흡소핑, 공공언어 최우수 기관 선정

2년연속 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 "편한 우리말로 소비자와 소통"

공영흡소핑이 '2025 쉽고 바른 공공언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26일 공영흡소핑에 따르면 문체부는 공공 부문의 올바른 언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시도 교육청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서등 평가'를 진행해 왔다. 공영흡소핑은 보도자료에서 어려운 단어나 한자, 외국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 전체 331개 공공기관 중 1위를 차지

했다. 공영흡소핑은 유일한 공공기관 흡소핑으로서 바른 공공언어 사용에 앞장서고 있다. 2023년 '공공기관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평가'에서 24개 우수기관에 선정된 이후, 2024, 2025년 연속 '공공언어 최우수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공영흡소핑 관계자는 "외래어 사용이 빈번한 유통업계에서 바른 우리말 쓰기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쉽고 편한 우리말로 소비자와 널리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현대차·기아 비전 펄스, 국제 광고제 수상

어린이 통학 안전 기술 캠페인 호평

기술을 토대로 인류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하고자 하는 현대자동차·기아의 노력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현대차·기아는 어린이 통학 안전을 높이는 기술 '비전 펄스' 기술 캠페인이 국제 광고제인 원소와 스파이크 아시아에서 각각 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원소 광고제에서는 '지적 재산·제품디자인' 부문에서 본상을, 스파이크 아시아에서는 '혁신' 부문에서 동상을 각각 수상했다.

비전 펄스는 정밀한 위치·거리 측정에 특화된 초광대역(UWB) 전파를 활용해 차량 주변 장애물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안전한 운전을 돕는 첨단 주행 안전 기술이다.

이 기술은 먼저 차량에 적용된 UWB 모듈이 전파를 발산하고, 주변 다른 차량이나 오토바이, 자전거, 보



현대차·기아의 비전 펄스 기술 작동 그래픽

행자 등에 UWB 신호를 발산하는 모듈이 있을 경우 양쪽 UWB 모듈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뒤 충돌이 우려된다면 경고를 보낸다. UWB는 ㎒(기가헤르츠)폭의 초광대역 전파를 사용해 정확한 위치를 10cm 오차 범위 내로 파악할 수 있다.

/양성훈 기자 ysw@



BNK부산은행은 '아이러브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BNK부산은행

## 부산은행, 가족 축제 '아이러브 페스티벌'

어린이·가족 등 시민 5000명 참여

BNK부산은행은 지난 25일 문헌동 부산은행 본점 및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일원에서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참여형 축제 '아이러브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시민 약 5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체험과 문화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대규모 가족형 축제로 진행됐다. 주말 유동 인구가 적은 BIFC 상권 내 음식점과 카페

등 소상공인들도 이번 행사에 함께 참여해 매장을 운영해 지역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아이러브 페스티벌'은 저출산 극복과 보육환경 개선을 목표로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BNK부산은행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특히 본점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해 지역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체험과 나눔이 결합된 참여형 활동으로 의미를 더한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한유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 등급

11개 사업 부문 모두 목표치 초과

한국중소벤처기업유동원이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2025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26일 한유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한유원은 조사 대상인 11개 사업 부문에서 모두 목표치를 초과하는 점수를 획득하며 고객 서비스 품질의 균형 잡힌 성장을 증명했다.

이러한 성과는 이태식 대표 취임 이후 강력하게 추진해 온 '고객 체감형 경영'의 결과로 풀이된다. 그동안

한유원은 고객소통 전담반을 신설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소통 활동을 지속해 왔다. 또한, 임직원 대상 고객 서비스 교육을 진행하고, 타 기관 혁신 사례 벤치마킹 등 조직 내 '고객 우선' 문화의 정착에 집중했다.

이태식 대표는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고객만족도 매우 우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